

Living the Lotus 12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4
VOL. 231



Overseas Members of Rishso Kosei-kai Participate
in the 2024 Oeshiki-Ichijo Festival in Tokyo

Living the Lotus
Vol. 231 (December 2024)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mailto: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편집 스탭: 국제전도부 스탭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모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쿄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만남이 키워준다 -공경하는 마음·부끄러워하는 마음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鑛)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만남」을

헤이안(平安)시대의 승려이며 시인이기도 한 사이교(西行:1118-1190)법사의 ‘가을 들녘의 풀잎에 맺힌 이슬을 모으면 연꽃 연못으로 가득해지겠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늦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서일까요, 단풍에 물든 잎이 아침이슬에 젖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경을 그린 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덧없이 사라지는 것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아침이슬을 한데 모으면 청아한 이슬로 가득한 연꽃 연못이 된다고 사이교 법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자연의 정취를 담은 듯하지만, <법화경 화성유품>의 한 구절인 ‘원컨대 이 공덕으로 널리 일체에 미치게 하시고 우리들과 중생이 함께 다 같이 불도를 이루어지이다’를 빗댄 것으로, 이슬이란 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교 법사가 살았던 헤이안 시대는 재해와 역병, 전란과 기아 등이 계속되어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사이교 법사는 그런 세상을 걱정하며 곤궁하고 고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제하고 싶다고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로부터 약 9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의 근본적 양상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제 눈에는 비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성을 자각한 많은 사람들로 넘치는 연꽃 연못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지금도 온 세상 누구나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자신의 불성을 자각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연을 닿아 줌으로써, 모두가 공경하고 화합하는 세계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포교전도라고 하는 ‘만남’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성이 빛나는 연꽃 연못으로

그런데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저절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지난 호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저에게도 뜻하지 않게 ‘경(敬)과 치(恥)’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쓰라리고 감사한 체험이 있습니다.

대학 3학년 여름, 당시 다니던 검도 도장(스승의 자택)에서 두 달 동안 숙식하며 수련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연습과 청소 등의 일로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 집으로 달려 오신 나카무라 토우키치(中村藤吉) 스승께서는 집이 떠나갈 듯한 큰 목소리로 “넌 지금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니 당장 나와 집으로 가자!”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크게 혼이 나고 다시 도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꾸짖어 주신 스승께 저는 지금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느끼지만, 동시에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에이, 뭐야!’ 하며 반발심을 품었던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향상할 의식이 부족하면 반성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그러한 부끄러움도 모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에이, 뭐야!’가 ‘이대로는 안 된다’ 로,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불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발동하게 되는데, 제 경우에는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 생활에서의 참회가 인간적인 성장을 생각함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이라는 관계 속에서만이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는 공경하는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눈을 뜹니다. 본 회의 되도록과 인도 수행에도 자타가 함께 그러한 마음을 기르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감염증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고, 그 만남을 계기로 불연(佛緣)을 넓혀서 지역 사회를 불성이 밝게 빛나는 연꽃 연못의 오아시스로 만드는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잊지 않도록 우리들은 매일 독경공양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경문을 되새기며 ‘모두가 불성의 자각에 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각각의 가정과 직장, 지역에서의 ‘인사’와 ‘배려’입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나’였을까요? —

『교성』 2024년12월호



무상을 자각하여 지금을 열심히 살아간다 — 그것 이야말로 아들에 대한 가장 큰 희망

입정교성회 영국 런던센터 타자나 오피아

입정교성회 런던센터에는 언제, 어떠한 경위로 입회를 하셨습니까?

제가 입정교성회에 입회한 것은 2023년 5월입니다. 그 당시 저는, 집 가까이, 또는 온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불교센터를 인터넷에서 찾고 있던 중, 입정교성회 런던센터의 웹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은 이메일로 매거진을 읽었습니다만, 어느 날 “당신도 근본불교 공부모임에 참가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라는 고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호소야 교우이치로 런던 센터장님께 직접 연락을 해보니, 제가 불교공부에 참가하는 것을 아주 기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대면한 호소야 센터장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공부도 아주 흥미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호소야 센터장님이 ‘내일 선데이 서비스(일요일예배)에도 꼭 와주세요’라고 권유해주셔서 저는 망설임없이 일요일예배에 참가하였습니다.

일요일예배에 나가서 런던센터의 많은 회원들과 만났습니다. 모두들 웃는 얼굴이 아주 멋진 상냥한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 후 ‘경전’을 독송하는 등, 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승가 여러분들은 제 옆으로 와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하며 여러가지를 자상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매주 일요일예배를 고대하며 참가하게 되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정교성회 승가의 일원이 된 것에 감사함과 더불어 행복을 느끼고



타자나 오피아씨

있습니다.

런던센터에서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셔서 약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가르침에 의해 깨달음을 얻은 체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만, 실은 2020년 9월, 정신적으로 병이 있었던 아들이 갑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 버렸습니다. 아직 21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과 상실감에 시달리면서 저는 ‘어째서 아들에게 힘이 되어 주지 못했던 걸까...’하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제 자신의 무력함을 탓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하며 후회와 무력감의 감정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한 번만이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런던 센터 회원 집 법당 앞에서 승가들과 함께



만나서 안아주고 싶다'며 매일 같이 눈물이 마를 새 없이 계속해서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깊은 슬픔과 고통의 나날이 몇 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약 3년동안, 저는 죽음이라는 냉엄한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게 머리로는 알아도 아들과의 영원한 이별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전기가 찾아왔습니다. 호소야 센터장님으로부터 근본불교를 배우고, 또 많은 승가 여러분들께 격려를 받으면서, 저는 여러가지 깨달음을 얻어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삼법인의 제행무상에서는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괴로움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며,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매일 무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을 자각함으로써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슬픔에도 휘둘리지 않고, 눈 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만나 약 1년반, 저는 조금씩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실과 마주하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우란분절, 9월에는 아들의 기일 법요를 런던센터에서 지내게 되어 많은 회원분들이 참가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요를 통해서 아들



런던센터 독경공양(앞 줄 오른쪽)

과의 영적인 유대를 강하게 의식하여, 아들이 제 마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매일 무상을 자각하여 지금을 열심히 살아간다-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보다 풍부하게 적극적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 되며, 아들에 대한 가장 큰 회향이 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법화경에서 좋아하는 말,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경문은 있으세요?

저는 교성회 회원이 된 지 얼마 안되어, 법화경을 제대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경문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아들의 기일 법요 때, 어떤 회원분께서 “법화경 25품(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어주면 좋을 거야”라는 말을 들은 것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믿고, 이 경을 읽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세음보살의 공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품을 가장 좋아하며 앞으로도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경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입정교성회의 가르침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말이나 가르침은 있으십니까?

회장선생님께서서는 평소에 저희들 회원들에 대해서 ‘마음밭을 간다’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매일, 마음 밭을 부드럽게 가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며, 제 자신의 불성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정교성회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셨습니까?



도량에서 중 역할을 하고 있는 타자나씨

Interview

까?

저는 입정교성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교서적도 읽고 티벳불교 단체에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어쩐지 나에게는 맞지 않고 뭔가 딱 느낌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센터를 방문했던 때, ‘여기는 나를 편안하게 해 줄 곳이군’하고, 마치 나의 고향에 되돌아온 듯한 불가사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센터에서 호소야 센터장님으로부터 근본불교와 범화경을 배우고, 법좌 수행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 자신을 내성함으로써 보다 좋은 인간으로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수행 목표, 또 장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가르침을 더 깊이 배우고 여러가지 수행을 더욱더 열심히 하여 승가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지혜를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일본의 입정교성회 본부를 방문하여 가능하다면 회장선생님과 만나 말씀을 받고 싶다는 큰 꿈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인격을 닦아, 매일을 온화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몸에 익히는 것,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2024년 7월13일에 거행된 런던 센터 우란분절 식전 후에 회원들과 함께 (앞 줄 중앙)



부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려져서 살고 있는 기쁨을 전한다

입정교성회 개조님 니와노 닛쿄(庭野日敬)





「부처님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독경하는 것입니다. 조석으로 경전을 독송하면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기쁨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유화한 태도로 대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민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부처님에 의해 살려지고 있어요.」라고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며 또 수행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각 지역의 교성회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많은 회원들이 기쁘게 맞아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계시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있다」고 하는 감격으로 마음이 벅칩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이 기쁨은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도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기쁨을 소리 높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니와노 닛쿄 범화집1 『보리의 싹을 트게 함이니라』 p.6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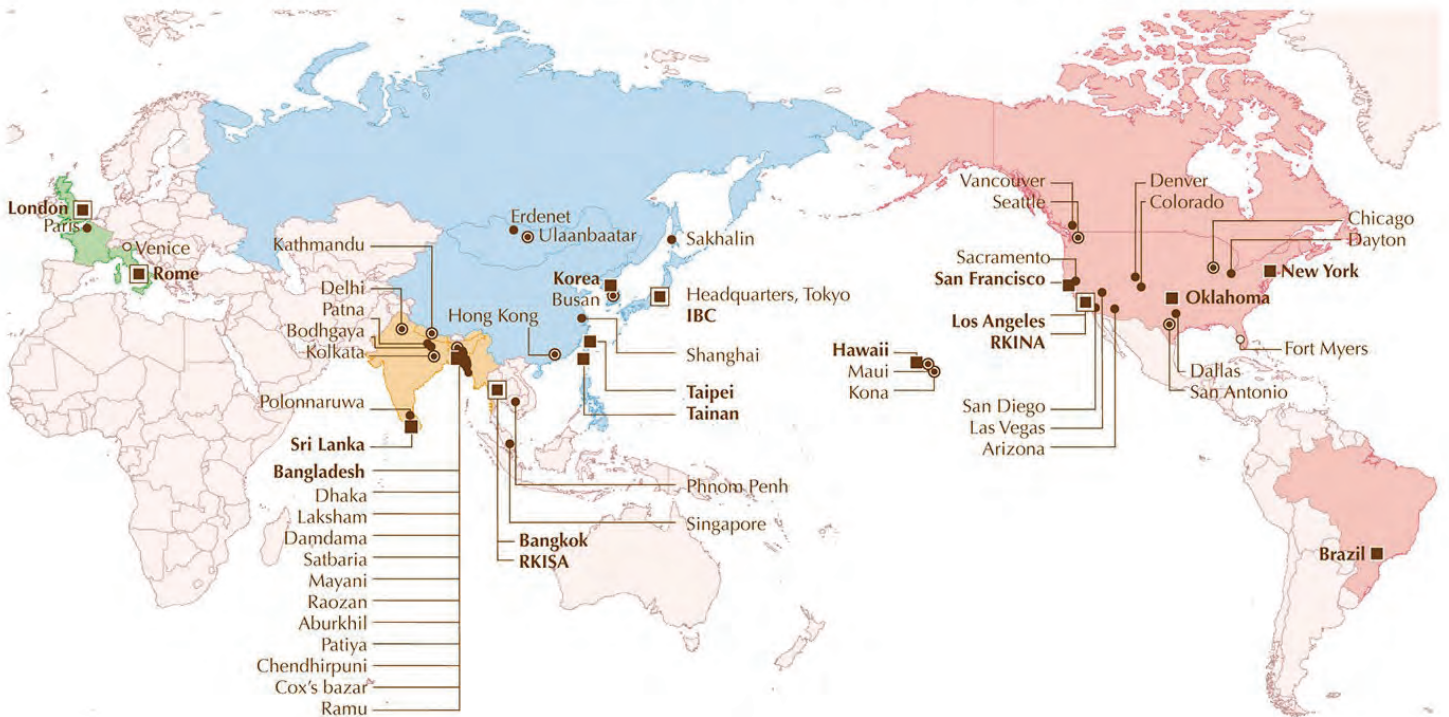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